



원장님 힘내세요

김양미/매일경제TV(CH20) 「메디컬센터」 PD



나는 유행에 민감하다. 테크노 음악에 테크노 댄스를 즐기고,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며, — DDR을 밥 먹듯이 한다. 서른의 나이에….

그런데 질병에 있어서도 유행에 민감한 것이 문 제다. 유행한다는 독감이나 전염성 질병들도 놓치지 않고 한 번씩 앓아야 한다. 감기가 유행한다는 보도 가 나올 무렵이면 벌써 마스크를 달고 산다.

그런 내게는 주치의가 있다. 세도가나 재벌가의 자녀도 아닌 내게 무슨 '주치의'냐 하겠지만, 병치 레를 유행 타듯이 해서 단골로 다니게 된 집 근처 '김내과'원장님은 나의 주치의의 노릇을 하신다.

유행성독감 때문에 찾아가면, 위장병을 앓았던 것 을 감안해서 처방하실 때에 위에 부담이 되는 약 은 말씀도 드리기 전에 알아서 절제하신다.

뿐만 아니라 다른 삭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 도 내가 유행에 민감(?)한 것을 아시고 미리 예방주 사나 건강관리에 관한 조언을 주신다. 그래서 나는 감히 김원장님을 나의 주치의라 부른다.

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 『지역주치의제도』가 활 성화되어 있다. 지역 주민 50가구나 100가구 당 내 과나 외과 전문의 몇 사람이 배정되어 있어 주민의 보 건과 질병예방을 맡아서 본다.

그래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 때문에 대형병 원에서 '세 시간 대기 삼분 진료' 하는 일은 없다.

우리들이 흔히 '병원'이라 부르는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, 병원,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 나뉜다.

임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수가 20개 미 만은 의원, 20에서 80개인 경우 병원, 80병상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이라 정의하고, 수련의를 교육시킬 수 있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학병원이라 한다.

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전문과목이나 진료의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.

우리나라 국민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무조 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.

물론 다양한 장비나 시설, 인력을 갖추고 있어 서 까다로운 질병을 밝혀내는데 유리하다.

하지만 감기나 몸살, 휴식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 율적인 일이다. 작게는 환자는 비용과 시간을, 크게 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료발전을 위해 연구해야될 인력과 시설을 낭비하는 일이다.

병에 걸리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동네 의사, 의원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. 지금의 병과 관 계없다 할지라도 치료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 가 있기 때문이다. 또한 많은 동네의원 의사들은 종 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그 실력을 검증 받고 난 후 개원을 한 사례가 많아 신뢰할 만 하다.

요즘 동네의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.

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와 의료보험 수가 조정 으로 경영난에 처해있다.

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'동네의원살리기운 동본부'도 만들어, 의료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동 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.

얼마전 감기증상으로 찾아갔더니 김내과 원장님 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.

"의약분업 때문에 데모하러 나오래……"

평생 청진기만 들고 사시던 분이 피켓과 플래카 드를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면, 그래도 밥 꼭 먹고 약 먹으라 성화하신다.

원장님, 힘내세요!